

## 7 월 28 일은 세계 간염의 날 -

###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러스성 간염 인식 개선과 정부 의료정책 추진 절실

- 7 월 28 일 세계 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 간염의 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와 관리, 예방의 중요성 강조
-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러스성 간염 인한 사회적 부담 가장 커, 인식개선과 정부 의료정책 추진 절실
- 대한간학회, 아시아태평양 바이러스성 간염퇴치 연합 기구와 함께 공동의 노력 뜻 밝혀

[2011년 7월 28일 - 한국, 서울] 7월 28일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 1회 세계 간염의 날이다. 세계 간염의 날은 지난 2010년 5월 21일, 세계 보건 총회의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의결(World Health Assembly's Resolution on Viral Hepatitis, WHA63.R18)'에 따라 제정되었다.

세계 보건 총회는 이 의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와 관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러스성 간염인 B형 및 C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12명 중 1명의 유병률을 나타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약 백만 명에 달한다.<sup>1</sup> 실제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해 사망하는 환자수는 매년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가장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인도는 만성 B형 간염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수가 각각 1억 2천 3백만 명과 5천 9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의 모든 감염 환자들의 50%에 달한다.<sup>2,3</sup>

우리나라의 경우 B형 간염이 대표적인 만성 간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약 250만 명)가 현재 감염된 상태이며, 이 중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해마다 2만 여명이 간질환 및 간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만성 B형 간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0%정도다.<sup>5</sup>

이러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B형 및 C형 간염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건 의료 정책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세계간염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바이러스성 간염퇴치 연합 기구(CEVHAP: Coalition to Eradicate Viral Hepatitis in Asia Pacific)'를 결성했다.

이 기구의 공동 설립자이자 국립대만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인 첸(DS Chen) 교수는 "만성 간염은 오랫동안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질환으로, 일반 대중과 정부의 관심이

비교적 낮은 질환" 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수의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국가들도 비슷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만성간염 환자 중 절반 이상은 무상으로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41%의 환자들은 B 형 또는 C 형 간염 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sup>4</sup>

이에 따라 대한간학회도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간염 인식 개선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했다.

한국간재단 서동진 이사장은 "최근 정부의 백신사업이나 다양한 질환 캠페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B 형간염 유병률이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B 형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환자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고 말하며, "세계 간염의날을 통해 일반 대중과 환자들이 다시 한번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서동진 이사장은 또 "무엇보다 세계간염의 날을 통해 정부도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국내 간염 환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정책을 추진,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환자와 일반 대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 **대한간학회 소개**

대한간학회(회장 이창돈/이사장 유병철, <http://www.kasl.org/>)는 1981년 5월에 창립된 '한국간연구회'의 취지를 계승, 1995년 6월에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주요 활동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학술활동과 간 질환에 관련된 기초 및 임상 연구, 신진 연구인력 장려 및 교류, 희귀 간질환연구, 바이러스 성 만성간염 및 간경변 합병증의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이 있다. 특히, 2000년에 10월 20일을 간의 날로 제정한 이후로 매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간 질환의 위험성과 예방법, 적절한 치료법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CEVHAP 소개**

아시아태평양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연합(CEVHAP: Coalition to Eradicate Viral Hepatitis in Asia Pacific)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결성된 독립적 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바이러스성 간염을 퇴치하기 위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CEVHAP는 2010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염 및 바이러스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중보건의료정책 형성(public policy formulation) 및 의료교육(health education)분야에 정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 **문의**

에델만코리아	김정현 차장	02-2022-8265 / 010-9842-0531	jeonhyun.kim@edelman.com
	강승희 대리	02-2022-8233 / 010-8720-6497	allisen.kang@edelman.com

---

<sup>1</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Viral hepatitis: Report by the Secretariat.

[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EB126/B126\\_15-en.pdf](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EB126/B126_15-en.pdf) (accessed 30 March, 2010)

<sup>2</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www.who.int/csr/disease/hepatitis/en/>

<sup>3</sup> Ferlay et al. Globocan 2002, Cancer incidence, mortality and prevalence worldwide, IARC Press, Lyon 2004

<sup>4</sup> World Hepatitis Alliance, Viral Hepatitis: Global Policy

[http://www.worldhepatitisalliance.org/Libraries/Campaign\\_Materials/Viral\\_Hepatitis\\_Global\\_Policy.sflb.ashx](http://www.worldhepatitisalliance.org/Libraries/Campaign_Materials/Viral_Hepatitis_Global_Policy.sflb.ashx)

<sup>5</sup> 통계청, 2009년 사망원인통계